

저자 (Authors)	임기환
출처 (Source)	역사비평 , 1993.8, 117-128(12 pages) Critical Review of History , 1993.8, 117-128(12 pages)
발행처 (Publisher)	역사비평사 The Institute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08872
APA Style	임기환 (1993). 기획1 : 설화를 통해 본 한국고대의 사회변동 온달서동 설화와 6세기 사회. 역사비평 , 117-12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0 15:2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온달 · 서동 설화와 6세기 사회

임기환
경희대 강사, 한국사

이야기와 역사로서의 설화

어린시절, 별들이 쏟아져 내릴 듯한 한 여름 밤에 하늘의 별자리를 더듬어가며 견우와 직녀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동화책에서 본 오리온이나 전갈, 카시오페아 별자리에 얽힌 전설들을 떠올려본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신(神)과 신의 아들과 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하늘의 별자리만큼이나 아득한 신화의 세계였다. 우리는 그런 신화를 통해 인간의 기억이 시작되는 가장 먼 과거를 향해 날아가 그런 신화를 만들던 시대의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였다.

또 단군이 조선을 세운 이야기, 주몽과 온조와 박혁거세가 삼국을 세운 이야기도

듣고 배웠다.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 땅의 이곳저곳에서 인간의 세계를 만들어 간 설화의 세계였다. 이 땅의 구석구석에는 그곳에 살았거나 머물렀던 옛사람들에 얽힌 이야기가 남아 있다. 그런 옛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역사를 배웠다. 그래서 그 시절 '역사'는 '옛날 이야기'였으며, 우리는 신화와 설화의 세계로부터 역사이해의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옛 신화와 설화 중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사랑 이야기이다. '백설공주'와 같은 서양식의 왕자와 공주의 사랑이야기가 흔하디 흔한 가운데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 같은 것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옛이

야기라는 점에서 더욱 큰 감동과 흥미를 불러일으켰던 기억이 있다. 더욱이 온달이나 서동의 이야기는 왕자와 공주의 사랑이라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보라고 놀림을 받거나 마를 캐고 살았던 가난하고 미천한 평민 출신이 공주와 결혼하여 위대한 장군이나 백제왕이 된다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우리네 같은 소박한 사람들에게는 좀더 친근감있는 이야기로 다가왔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온달과 서동의 설화를 통하여 6세기 역사상의 한 단면을 그려보고자 한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에서 신화나 설화는 언제나 한쪽으로 비켜나 있었다. 신화와 설화가 빠진 역사는 무미건조하고 웬지 아쉽게만 느껴졌다. 특히 고대사의 경우는 신화와 설화의 주인공을 빼버리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그래서 역사 연구자들도 설화와 역사를 결합시키는 노력을 쉬지 않는다.

그러나 설화를 통해서 잃어버린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설화 자체가 역사의 산물이고, 따라서 설화 안에는 일정한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지만,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단지 이야기일 뿐인가를 구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 설화는 그것이 문자로 정착되기까지 오랜 시일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시대에 걸쳐 그 이야기를 듣고 즐기고 전하였던

다양한 사회계층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꿈과 염원이 담겨 있다. 그래서 문자로 기록된 설화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문화적으로 복합적인 내용을 갖게 된다.

이 글에서 온달과 서동 설화를 통해 6세기의 사회상을 살펴보는 데도 위와 같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이 두 설화에서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의 경계선을 찾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있을 법한 사실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6세기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점도 짚고넘어가야 한다. 이 두 설화가 처음 문자로 정착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설화는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후대의 관념이나 사실이 첨가·윤색되었다면, 위 설화를 통해 6세기의 사회상을 찾아보려는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되기 쉽다. 이 점은 설화를 통한 역사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설화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지는 않겠다. 단지 설화 속에서 몇 가지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찾아보고, 이를 다른 사료를 통해 구성된 당대의 역사상과 관련시켜 재해석해보는 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 문학연구에서 흔히 시도되고 있듯이 설화에 나타난 상징성을 중심으로 한 접근은 가급적 피하고자 한다. 그러한 방법은 설화를 통시대적으로, 평면적으로 바라보게 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온달설화에서의 사실과 허구

『삼국사기』 열전에는 다음과 같은 온달에 관한 설화적인 전승이 전하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장황한 감이 없지 않으나,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상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평원왕) 때의 사람이다. 용모가 여위어 우습게 생겼지만 마음씨는 명랑하였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항상 밥을 빌어다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떨어진 옷과 헤어진 신으로 저자거리를 오고가니 그때 사람들이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다.

평원왕의 딸이 어려서 울기를 잘하므로 왕이 희롱하여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보내야 하겠다고 매양 말하였다. 딸의 나이 16세가 되어 상부(上部) 고씨(高氏)에게 시집보내려 하니, 공주가 대답하기를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온달의 아내가 된다고 하셨는데 무슨 까닭으로 전의 말씀을 고치십니까?... 소녀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왕이 노하여 “내가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려면 너 갈 데로 가려 무나” 하였다. 이에 공주는 보물 팔찌 수십 개를 팔에 차고 궁궐을 나와 혼자 길을 떠났다.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 온달의 집을 물어 그의 집에 이르니, 눈먼 노모가 있어 절하고 아들 있는 곳을 물었다. 노모가 대답하기를 “우리 아들은 가난하고 추하여 귀인이 가까이 할 인물이 못됩니다. 지금 그 대에게서 꽃다운 향기가 나고, 그대의 손이 솜과 같이 부드러운 것을 보니 필시 천하의 귀인인데, 어찌하여 여기에 오게 되었소. 내 자식은 주림을 참지 못하여 느릅나무 껍

질을 벗기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소” 하였다.

이윽고 온달을 만난 공주는 자신이 품은 뜻을 전하고, 놀라는 온달 모자를 설득하여 마침내 온달의 작이 되었다. 이에 공주는 황금팔찌를 팔아 전태 노비 우마 기물들을 사들이니 살림살이가 갖추어졌다. 처음에 말을 살 때 공주는 온달에게 이르기를 “부디 시장사람들의 말을 사지 말고 국마(國馬)로서 병들고 수척하여 버리게 된 것을 고른 다음 값을 치려야 합니다”라고 하니, 온달이 그대로 따랐다. 공주가 말을 기르는 데 매우 부지런하여 말이 날로 살이 찌고 건강해졌다.

고구려에서는 항상 봄철 3월 3일이 되면 낙랑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여 잡은 돼지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신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 날이 되면 왕이 나가 사냥하고 여러 신하들과 5부의 병사들이 모두 따라 나갔다. 이에 온달도 기르던 말을 타고 따라갔는데, 언제나 앞장서서 달리고 잡은 짐승도 제일 많아서 온달을 따를 자가 없었다. 왕이 불러 그 이름을 물어보고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이때 후주(後周)의 무제(武帝)가 군사를 보내어 요동을 침략하여, 이와 맞서 싸울 때 온달이 선봉이 되어 적병 수십 명의 목을 베니 모든 군사들이 기세를 타고 들이쳐서 크게 이겼다. 전공을 논할 때 모두들 온달의 공이 제일이라 하였다. 왕이 온달을 칭찬하고 “나의 사위”라며 예를 갖추어 맞이하며, 대형(大兄)의 벼슬을 내렸다. 이로부터 온달에 대한 왕의 은총과 영화가 더욱 두터워졌으며, 온달의 위풍과 권세가 날로 성하였다.

그 후 양강왕(양원왕)이 즉위하자 온달이 아뢰기를 “신라가 우리 한수 이북의 땅을

빼앗아 군현을 삼았으니, 백성들이 통분하게 생각하여 일찍이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사옵나이다. 대왕께서 군사를 주신다면 한번 걸음에 우리 땅을 도로 찾아오겠습니다”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온달은 “계림령과 죽령 서쪽의 땅을 회복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하여 맹세하고 나아가 아단성 아래에서 싸우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죽었다.

그를 장사지내려 하였으나 관이 움직이지 않으며,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생사가 이미 결판이 났으니, 아아 돌아가시라” 하니 그제야 관이 들리었다. 대왕이 이를 듣고 매우 슬퍼하였다.

위 온달설화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전반부는 평강공주가 궁궐을 나와 온달과 결혼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공주의 도움으로 무예를 닦은 온달이 무인으로 출세한 활약상을 담고 있다. 전반부가 극히 설화적 내용이 짙은 반면에, 후반부는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한낱 이름없는 병사에 지나지 않았던 온달이 3월 3일의 정례적인 수렵에서 그 활약이 두드러져 평원왕의 부름을 받은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또 후주(북주가 옳다)의 침입을 격퇴할 때 뛰어난 무공을 세워 대형의 관등을 받은 사실이나,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출정하였다는 내용도 당시 고구려가 처한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그러한 활동을 보인 인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겠다.

따라서 위 온달설화가 하나의 설화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은 전반부의 내용 때문이다. 예컨대 쇠약한 국마(國馬)를 사다가 잘 길렀다는 대목은 주몽설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상투적인 설화적 모티브가 온달설화에도 첨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무엇보다 온달설화를 설화답게 하는 것은 온달과 공주의 사랑이야기이다. 즉 온달은 바보라고 불릴 정도로 가난하고 미천한 출신인데, 그렇다면 위 이야기대로 당시 고구려 사회에서 그러한 출신이 과연 공주라는 높은 신분층과 혼인을 하고 또 무공을 세워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을 누구나 가져보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으로는 당시 그러한 혼인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된다. 사실 이러한 혼인은 신분제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커다란 뉴스거리가 될 만큼 극히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의 이야기로 꾸며졌기 때문에, 이러한 극적인 요소에 의해서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온달의 이야기가 설화로서 생명력을 지니고 전해지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위 설화의 전반부를 단지 꾸며진 허구의 이야기로만 간주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조심스럽게 찾아내야 한다. 이 작업은 잠시 뒤로 미루어두고, 먼저 온달설화와 유사한 내용을

갖는 서동설화를 살펴보자.

복합적인 전승구조를 갖는 서동설화

백제 무왕과 관련된 서동설화는 『삼국유사』 기이편(奇異篇)에 실려 있는데, 이 설화 역시 원문대로 인용해보자.

23대 무왕의 이름은 장(璋)이다. 그의 어머니가 (백제의)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흠어미로 살았는데, 그 못의 용과 상관하여 그를 낳고 아명은 서동(署童)이라 하였는데, 그의 재능과 도량은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가 평소에 마를 캐어 팔아서 생업을 삼았으므로, 사람들이 서동이라 이름을 지은 것이다.

서동은 신라 진평왕(眞平王)의 셋째 딸인 선화(善化) 공주가 곱고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와서 동리아아들에게 마를 나눠먹었더니 여러 아이들이 그와 친해져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서동은 동요를 지어 여러 아이들에게 이를 부르게 하였는데, 그 노래는 “선화공주님은 / 남몰래 시집가서 / 서동이를 / 밤이면 안고 간다”라고 하였다. 이 동요가 서울 안에 가득 퍼져 마침내 대궐에까지 들어갔다. 모든 관료들이 지극히 간언하므로 왕도 할 수 없이 공주를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게 되었는데, 떠날 때 왕후가 순금 한 말을 노자돈으로 주었다. 공주가 귀양살이 처소로 향하여 가는데, 서동이 도중에 뛰어나와 절을 하면서 호위하여 가겠다고 하였다. 공주는 비록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지만, 우연히 마음이 당기고 좋았기 때문에 따라 오게 하였다. 그리고 도중에 남몰래 관계를 한 뒤에야 서동이란 이름을 알고서 동요가

맞은 것을 믿게 되었다.

함께 백제까지 와서 왕후가 준 금을 내어 놓고 장차 살림꾸릴 일을 의논하는데, 서동이 웃으면서 “이게 무슨 물건이요” 하니, 공주가 “이것은 황금으로 이것만 있으면 한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소” 하였다. 서동이 말하기를 “내가 어릴 적부터 마를 캐던 데는 이것을 내다버려 쌓인 것이 흠더미 같소” 하였다. 공주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면서 “이것은 세상에도 다시 없는 보물이요, 당신이 지금 황금 있는 데를 알거든 그 보물을 부모님 계신 궁궐로 실어보냈으면 어떻겠소?” 하였다. 서동이 이에 허락하고는 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용화산(龍華山) 사자사(師子寺) 지명법사(知命法師)를 찾아가서 금을 실어나를 계책을 의논하니, 법사가 귀신의 힘으로 하룻밤 동안에 신라 궁중으로 날라다주었다. 진평왕이 이를 신기하게 여겨 더욱 존경하면서 늘 편지를 띄워 안부를 물었더니, 서동이 이 까닭으로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올랐다.

하루는 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다가 용화산 아래의 큰 못가에 이르자 못 가운데서 미륵삼존(彌勒三尊)이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치성을 드렸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여기다가 큰 절을 짓도록 하소서. 저의 진정 소원이외다” 하였다. 왕이 이를 허락하고 지명에게 가서 못을 메울 일을 물었더니, 법사가 귀신의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워 평지를 만들었다. 이에 미륵삼존을 모실 전각과 탑과 행랑을 각각 세 곳에 따로 짓고, 미륵사라는 현판을 붙였다. 진평왕이 여러 장인을 보내 도와주었는데, 지금도 그 절이 남아 있다.

서동설화는 서동요라는 향가와 관련된 설화이기 때문에 국문학계에서도 일찍부터 주목해오던 터였다. 서동설화는 온달설화와 달리 보다 복잡한 전승구조를 갖고 있는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단락은 곧 서동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른바 ‘야래자(夜來者)설화’의 모티브를 갖고 있는 내용이다.¹⁾ 둘째 단락은 선화공주를 사모한 서동이 거짚노래를 퍼뜨려 공주를 쫓겨나게 하고 이윽고 공주와 결혼한다는 내용이다. 단순히 설화의 구조로만 볼 때는 서동요와 관련되어 가장 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셋째 단락은 황금더미를 찾아 큰 부자가 된다는 내용으로 민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굴금횡재(掘金橫財)설화’의 모티브가 나타나고 있다.²⁾ 넷째 단락은 앞의 세 단락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소위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로서 불교설화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다.

이처럼 서동설화는 불교의 연기설화나 후대 민담에서 자주 보이는 다양한 모티브가 함께 나타나는 다원적인 구성을 갖고 있으며, 그 내용도 온달설화보다 훨씬 설화적인 성격을 짙게 보이고 있다. 특히 서동의 어머니가 연못의 용과 교합하여 서동을 낳았다는 대목은 상당히 신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서동의 출신을 신비화시켜 서동이 예사로운 인물이 아님을 밝히는 이 설화의 전제이다.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출생설화에도 보이고 있어, 야래자=이물교구(異物交媾)라는 동일한 모티브의 설

화가 각 시대에 한 위대한 역사적 인물과 결합되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승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구려 최후의 집권자 연개소문의 가문은 그 조상이 연못으로부터 나왔다는 전승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전승도 이물교구의 모티브와 연관시켜 볼 수 있을 듯하다. 어쩌면 위 온달설화에도 본래는 서동설화처럼 신이로운 출생설화가 덧붙여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신이(神異)를 부정하는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그러한 설화를 빼버렸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어쨌든 서동설화에서 불교의 연기설화나 신비적인 요소가 두드러지게 짙은 첫 단락을 제외한다면, 둘째, 셋째 단락은 일단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명해보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가난한 백제인인 서동이 신라의 선화공주와 결혼한다는 내용이나 뒤에 왕위에 올라 무왕이 되었다는 내용이 결코 있을 법한 사실이 아니지만, 그것이 어떤 역사적 사실을 설화적으로 윤색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소재가 되었던 사실이 무엇이나가 그동안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목한 것은 백제 서동과 신라 선화공주와의 결혼으로서, 이를 곧 백제와 신라가 혼인동맹한 사실이 설화적으로 윤색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나제의 혼인동맹은 백제 무왕-신라 진평왕 때가 아니라 백제 동성왕-신라 소지왕 때이기 때문에, 위 설화의 무왕(무강왕)은 무왕이 아니라 동성왕

이나 무령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와 관련시켜 서동은 무왕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굳이 서동이 어떤 왕이나를 따져보려 하지 않겠다. 하나의 설화가 반드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여 거기에 여러 다른 설화적 모티브가 첨가·변모되어 형성되었다고 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서동설화에서 굳이 역사적으로 실재한 어떤 왕을 끌어내려는 시도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 서동이 실재한 백제왕이라면 왜 그가 굳이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의 서동으로 표현되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기에 설화가 아니냐고 되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없지만, 그런 식이라면 설화를 역사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다.

온달·서동 설화의 역사성

설화에 대한 접근은 그 역사적 소재와 설화의 형성 동기를 찾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설화 자체가 갖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회적 현실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 두 설화가 형성되었던 당대 사회의 현실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설화가 하나의 가공의 이야기로 꾸며진다고 해도, 그 설화의 주인공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은 그 설화가 형성될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온달이나 서동이 공주와 결혼을

하였든 아니하였든, 더 나아가 서동이 백제의 어느 왕을 모델로 한 것이든 아니든, 위 설화에 나타난 온달이나 서동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당대의 사회적 현실과 동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 두 설화에서 온달과 서동의 사회적 위치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통해 세 유형의 인간상을 만나게 된다.

첫째, 온달과 서동과 같이 흠어머니를 모시고 밥을 빌어 먹거나 마를 캐어 내다 팔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경제적으로 몰락한 존재는 계급사회로의 이행 이후 지금까지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이지만, 위 설화의 주인공들은 조금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위 두 설화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 두 주인공은 그 이전 시기의 가난한 계층과는 다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암시받을 수 있다. 특히 위 두 주인공은 경제적으로는 몰락한 존재라 하더라도 신분적으로는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둘째, 황금의 소유로 표현되는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있는 부민 계층이다. 가난하였던 온달과 서동이 공주와 혼인하여 황금을 팔아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처럼, 이들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부를 향유하고 있던 귀족계급과는 다른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셋째, 이 두 주인공처럼 경제적 부를

기반으로 정치적으로도 국가 지배세력의 하부로 편입되어가는 계층의 존재를 설정해볼 수 있다. 물론 위 설화는 공주와의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온달은 뛰어난 무예를 바탕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고, 서동은 민심을 얻어 그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평강공주와의 결혼에서 온달과 경쟁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부(上部) 고씨와 같은 전통적인 귀족 세력의 존재도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 설화들에서 주인공이 공주와 결혼한다는 내용이나 한 인간의 인생 역정이라는 이야기적 요소를 제외하면, 이상과 같은 네 유형의 인간상들이 서로 얽혀 있는 하나의 역사상을 그려볼 수 있다. 물론 실제의 역사상은 보다 다양한 사회신분과 계층의 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온달과 서동이 차례로 경험하는 세 가지 유형의 인간상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주목하고자 한다.

공주와의 사랑이야기를 빼버리면 위 설화는 아무런 극적인 재미가 없는 무미건조한 이야기가 되어버리지만, 바로 그 점에서 꾸며지지 않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다가갈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6세기 사회변동 속의 온달과 서동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친 시기는 한국사에서 커다란 사회변동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다. 그것은 생산력의 발전에 힘입

어 전개되고 있었다. 4세기 이후 삼국사회는 철제농기구가 널리 보급되고 있었으며, 이와 아울러 소에다 쟁기를 메어 논밭을 가는 우경이 권장·확대되고, 수리시설의 확충도 뒤따랐다. 이러한 농업생산력 발달의 결과 잉여노동력과 잉여생산물이 증대되면서 물자의 교환을 촉진시켜 상업과 수공업도 함께 급속도의 발전을 보았다.

신라의 경우 소지마립간 때는 사방으로 우역(郵驛)을 설치하고 도로를 정비하였으며(487년), 또 처음으로 왕경에 시장을 개설하였고(490년), 이어서 지증왕 때는 동시(東市)를 개설하고 아울러 이를 관리하는 시전(市典)이란 관청을 설치하기도 하였다(509년). 또 시장의 발달은 자연도시의 발달을 초래하게 되니, 자비마립간 때는 왕경의 행정조직을 정비하였고(476년), 지증왕 때는 지방도시로서 아시촌소경(阿尸村小京)이 설치되었다(514년). 또 수공업도 발달하여 신라의 경우 6~7세기에 많은 수공업 관청이 설치되었다. 특히 이 시기 고분에서 풍부하게 출토되는 다양하고 호화로운 유물들은 당시 수공업 생산이 크게 발전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³⁾

지금까지 사료의 제약 때문에 주로 신라의 경우를 살펴보았지만, 보다 선진적인 사회였던 고구려나 백제사회의 경우는 신라보다 이른 시기부터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변동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농업 및 상업·수공업의 발전에

따라 기존 읍락사회의 기반은 해체되고 있었다. 철제농기구와 우경의 보급으로 경작능력이 향상되면서 개별 가호(家戶) 단위의 경제적 자립성이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개별 가호의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도 진전되었다. 이렇게 하여 개별 경리의 주체로서 개개 가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위 설화에서 온달과 서동이 흙어머니를 모시고 매우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한편 당시 국가는 이들 개별 가호들을 수취대상으로 편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전답이나 노비, 가축 등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주시기도 하고, 진휼책과 같은 소농민 안정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온달이 황금을 팔아 전택과 노비와 우마 등 살림살이를 마련하였다는 이야기에서 당시 이런 재화들에 대한 소유권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개별 경리의 성장과정에서 사회의 계층 분화는 확대되었다. 소와 철제농기구를 소유한 계층은 이를 기반으로 상당한 토지와 부를 소유한 부호농민으로 성장해갔으나,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계층은 경제적인 몰락이 가속화되어 토지를 상실하고 부민층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거나 유망해가는 양상도 나타났다. 가난한 온달이나 마를 캐어 내다팔아 생계를 유지한 서동이 그러한 존재였다. 이러한 민의 사회경제적 분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는 빈부에 따라 수취에 차등을 두는 조처를 취하였다. 고구려에서는 6세기경에 3등호제가 실시되었음이 확인된다.⁴⁾

이 시기 새로이 토지소유를 확대해가며 부를 축적하는 계층으로 성장하는 데는 과거 읍락사회에서도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호민층(豪民層)이 유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호(下戶)적인 위치에 있었던 민 일반 중에서도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변동에 재빨리 적응해가며 부를 축적한 계층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또 상업의 발달에 따라 상인들 중에서도 상당한 부를 축적한 계층도 나타났을 것이다. 이들의 부의 축적과정은 조상대대로 확고한 경제기반을 확보한 귀족세력과는 달랐다. 그래서 위 설화에서는 온달과 서동이 마치 황금을 횡재하여 부자가 된 것처럼 묘사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으로 온달과 서동이 황금을 소유하였다는 의미를 생각해보자. 위 설화에서 온달이나 서동은 일단 공주가 궁을 나오면서 몸에 지니고 나온 황금 때문에 부자가 된다. 온달은 공주의 금팔찌를 팔아 저택과 전답은 물론 노비와 우마까지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서동은 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황금의 가치를 알고는 흙더미처럼 쌓여 있던 황금을 신라 궁궐에 보내어 진평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⁵⁾ 물론 서동이 왕위에 오른 데도 황금이란 경제적 기반이 중요한 구실을 하였을 것이다. 선화공주의 말대로 당시에 황금은 그것만 있으면 평생을 부자로 살 수 있는 세상에 다시 없는 보물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개척시기에도 황금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서부로 몰려갔듯이 초기 자본주의사회에서도 황금은 여전히 부의 상징이었다. 우리의 민담에도 우연히 황금을 얻어 벼락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많은데, 중세사회의 가난한 민들은 이야기 속에서나마 일확천금의 꿈을 키워갔던 것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황금이 이처럼 일반 민에게까지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었을까.

고대사회 초기에도 황금을 소유하고 황금으로 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급은 일부 지배세력에 한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황금이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당시는 황금제품을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을 극히 한정함으로써 최고 신분층의 상징, 권위와 위엄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고대의 고분을 발굴하면 금관이나 금제품이 출토되는 고분과 금동관이나 금동제품이 출토되는 고분이 구별된다. 이러한 차이를 고분 주인공의 세력기반의 차이로 보고 있다. 물론 세력기반의 차이는 곧 경제기반의 차이와도 밀접히 연관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고분주인의 정치·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백제 무령왕릉이나 4세기~6세기 초 신라의 적석목곽분에서 쏟아져 나오는 화려한 금관이나 금제장식품 등은 그 고분을 왕릉급으로 보게 하는 일차적인 표지적 유물이 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일성이사금 11년(144)

조에는 민간에서 금은주옥(金銀珠玉)의 사용을 금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사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삼국사회 초기에는 황금이 특정한 사회신분층에 한정되어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설화에서는 황금이 더이상 특정한 신분층의 향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위 설화에서도 평강공주나 선화공주가 궁궐을 나설 때 황금을 싸가지고 나왔다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왕실이나 최고 귀족층에서 주로 향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선화공주의 말처럼 황금만 있으면 평생을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이다.

온달설화에서는 공주의 금팔찌를 팔아 저택과 전답은 물론 노비와 우마까지 마련한다. 황금은 시장에서 매매되었고 그것은 다른 물건으로 교환되었다. 즉 황금은 교환가치를 갖는 재화였다. 서동설화에서도 이 점은 충분히 확인된다. 황금이 교환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그것의 수요층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실이나 귀족은 물론 온달과 서동과 같이 보다 낮은 사회신분층 중에서도 부를 축적한 계층이 새로이 황금의 수요층으로 등장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전 시기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경제적 부를 축적한 계층은 자연 다른 필요한 물자나 사치품을 원하였을 것이다. 『한서』 식화지에 “주옥과 금은은 배고파도 먹을 수 없고 추워도 입을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를 귀중

히 여기는 것은 윗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듯이, 새로이 성장한 부민층이 왕실이나 귀족들이 향유하는 황금 등의 보화를 원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이다. 물론 골품제와 같이 엄격한 신분제가 적용되는 사회에서 이에 대한 규제가 없었을 리 만무하지만, 부민층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황금 향유의 신분적 성격은 서서히 깨어져 갔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황금을 획득한 온달과 서동을 통하여 6세기를 전후하여 새로이 부를 축적하며 성장하는 부민층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온달이 무인으로 출신하여 벼슬길에 올랐다거나, 서동이 민심을 얻어 왕이 되었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그런데 온달이 대형 벼슬에 올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있음직한 사실이지만, 미천한 서동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이를 하나의 설화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를 서동이 상당히 파격적인 신분상승을 이루었다는 정도로 그 뜻을 한정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새로 성장하는 부민층이 단지 경제적인 부의 축적으로만 만족하였을 리 없다. 당시 사회에서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은 한편으로 정치적 진출과 성장도 꾀해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 기반이 곧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율령 반포 등으로 지배체제의 개편을 꾀하던 왕권이 관료체제의 확대과정에서 이들 새로운 세력과의 결합을 꾀

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치적 성장도 이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관료로서 국가 지배세력 내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관료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의 경당이란 교육기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당서』 고구려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고구려의 풍속은 서적을 매우 좋아하여, 미천한 집안까지도 각 거리마다 큰 집을 지어 경당이라 부르고, 자제들이 결혼을 할 때까지 그곳에서 독서와 활쏘기를 익히게 한다". 이 기록처럼 고구려의 경당은 일반평민 자제들이 활쏘기 등의 무예를 닦고, 독서를 통해 유교적 소양을 기르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당에서 중심이 되었던 것은 의당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민층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경당에서 기본적인 소양을 쌓고, 위 온달전의 내용처럼 수렵행사나 대외전쟁을 통해 그들이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관료로서의 진출을 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온달이 왕의 사위가 되었다거나 또는 대형의 벼슬에 올랐다는 전승은 적어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온달설화와 서동설화를 소재로 하여 6세기 사회상의 한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만 이 설화들의 이야기 속에 반영되고

있는 역사상들이 매우 한정된 범위이기 때문에, 자연 이 글에서도 6세기 사회상을 풍부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주로 사회분화의 양상과 부민층의 성장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6세기경에 형성된 온달과 서동설화는 어느 시기엔가 문자로 정착되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리게 되었다. 김부식은 온달전을 을파소나 밀우, 유유, 박제상 등등의 전기와 함께 묶어서 열전의 한 권을 엮었다. 이들 인물들의 성격은 국왕에 충성을 다한 인물로서, 곧 온달은 충신열전의 한 페이지를 차지한 것이다.⁶⁾ 이는 유교사가인 김부식의 역사인식으로서, 그가 온달설화에서 제일 주목한 것은 목숨을 걸고 국가와 국왕에 헌신하는 모습이었다. 승려인 일연은 서동설화를 역대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엮은 기이(奇異) 편에 실었는데, 아무래도 그가 중시한 것은 미륵사 연기설화 부분이 아닐까 한다.

어떤 연유로 해서 온달설화와 서동설화

가 두 역사서에 실리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래도 이들 설화를 즐겨 이야기하고 전했던 계층은 일반민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 설화에는 그들과 친근한 가난하고 미천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 주인공이 공주와 결혼하여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설화는 오랜 세월 전해지고 여러 형태의 민담으로 변모되어가면서 사랑이야기나 부자가 되는 이야기만 남고 그 역사적 성격이 탈각되어갔다.

이처럼 한 시대에 형성된 설화는 그것이 갖는 풍부한 이야기성으로 인해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계층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전해진다. 그것이 설화를 통한 역사이해의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설화에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생동감있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설화를 통하여 역사의 한 부분을 찾아보는 것은 언제나 의미있는 과제로 남겨진다.

주

- 1) 야래자(夜來者)설화는 곧 이물교구 설화로서, 밤에 정체를 숨겨 남자가 찾아오는데 알고보니 용·뱀·지렁이·산삼·오이 등이었다는 설화로,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민담의 모티브이다.
- 2) 굴금횡재(掘金橫財)설화는 가난하지만 마음이 착한 사람이 우연히 황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로, 민담에 자주 나타나는 모티브이다.
- 3) 전덕계,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 『역사와 현실』, 1990
- 4) 김기홍,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1991
- 5) 김 주변에 쌓여 있는 황금을 모르던 서동이 공주를 통해 황금의 가치를 깨닫는 내용을 열반경에 나오는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정회경, 「삼국시대 사회와 불경의 연구」, 『한국사연구』 제63집, 1988). 그러나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한 것은 황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다.
- 6) 이기백, 「온달전의 검토」, 『백산학보』 제3집, 1967